창업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이슈

글 : 김선우 (kims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가정신연구단 단장



1. 창업대중화 시대 개막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창업생태계는 '대중화'의 격변을 경험하고 있다.[1] 과거까지 소수의 창업자, 소수의 투자자만의 관심사였던 창업이 이제는 다수가 아이디어의 창업을 꿈꾸고 다수의 대중이 창업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학력 인구의 비중이 높고, 중산층 삶에 대한 열망이 크며, 산업화 수준이 높고, 광범위한 IT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개인 누구나가 '창업대중화'의 흐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창업대중화가 더욱 폭발력을 갖추게 된 것은 기술적 ·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람과 사물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망이 수립되고, 개인도 개인의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만으로 이 네트워크 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방대한 '네트워크화'가 창업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 부문이 불안정해지면서 취업을 중심으로 한 삶의 설계가 흔들이고, 사람들이 기존 제도권 밖에서 삶을 도모해야 하는 '개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종래 제도권 밖의 개인은 잉여적이거나 특수한 존재였지만 이제 개인은 네트워크에 의해 제도화된 또는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제도화된 개인(institutionalized individual)'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개인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석현 외, 2015).

'창업대중화'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창업생태계에 등장한 새로운 주체, 제2의 창업 · 벤처붐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이다.

2. 엑셀러레이터란 무엇인가

엑셀러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활동의 기간이 짧고, 사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인해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Scott, Jennifer, Michelle, 2014).

해외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로는 Y Combinator, Techstars, AngelPad, 500startups 등이 있다. Y Combinator의 비즈니스 모델 성공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엑셀러레이터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벤처 · 창업이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에 2천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미래부 · 중기청, 2014). 2015년 3월 기준으로 해외 엑셀러레이터의 활동 랭킹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해외 선진 엑셀러레이터의 특징은 공정한 선발, 조기 투자, 차별화된 1:1 멘토링, 코칭 중심의 단기간 집중지원 등을 들수 있다 (김선우 외, 2015 진행중). 엑셀러레이터의 활동은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미국 엑셀러레이터는 전형적인 민간주도형 모델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엑셀러레이터

1) 월스트리트저널 창간 1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집 기사를 기고한 안젤라 벤튼은 누구나 사업을 차릴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민주화(democratized)된 창업시대"라고 표현함

표 1 : 해외 주요 엑셀러레이터 랭킹

랭킹	투자 기업규모(개)		투자금 회수(백만 달러)		펀딩 규모 (백만 달러)		펀딩 라운드 횟수(번)	
1위	Y Combinator	747	Y Combinator	2,284	Y Combinator	4,043	Y Combinator	521
2위	Techstars	485	AngelPad	401	Techstars	941	500startups	343
3위	500startups	267	Techstars	176	AngelPad	231	Techstars	338
4위	DreamIT Ventures	139	LaunchpadLA	45	500startups	179	SV Angel	155
5위	Startupbootcamp	130	500startups	21	DreamIT Ventures	141	DreamIT Ventures	100
6위	Seedcamp	118	Seedcamp	17	Seedcamp	131	AngelPad	98
7위	AngelPad	98	Betaspring	14	Capital Innovators	111	Startupbootcamp	89
8위	The Alchemist Accelerator	90	Le Camping	10	Mucker Lab	110	NXTP Labs	76
9위	Nxtp.labs	73	Startmate	5	Imagine K12	94	Andreessen Horowitz	73
10위	Betaspring	71	Amplify.LA	2	Flashpoint	63	Eleven	65

자료: Seed-DB.com ('15.3월 기준)

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멘토링을 특화한 모델이고, 핀란드의 엑셀러레이터는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며 투자에 대한 지분은 보유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는 2010년 설립한 '프라이머'를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로 볼 수 있으며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패스트트랙아시아 등이 초기 엑셀러레이터이다. 최근 3년간 20여개가 넘는 엑셀러레이터가 설립 및 운영 중에 있다 (〈표 2〉 참고). 이들의 이해단체인 엑셀러레이터 리더스 포럼(ALF)에서는 엑셀러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공한 벤처인이 자신의 성공 노하우, 투자재원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발굴 · 투자하고,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accelerating)시키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이 엑셀러레이터이다.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는 모두 초기단계의 기업에 조언, 서비스, 자금조달,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의 그룹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는 ① 비영리조직이고 흔히 대학과 연계, ② 창업기업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 ③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④ 투자활동은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엑셀러레이터는 ①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분을 받고, ② 사무공간을 반드시 제공하지는 않으나 보통 미팅 공간 정도는 제공하고, ③ 지역적 제한 없이 창업기업을 선발 · 보육한다 (김선우 외, 2015 진행중).

3.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예비 창업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

표 2 : **국내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

기관명	대표자	실적	특징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신이철	· 4기수 운영, 45개사 지원	· 벤처1세대 출신 · 중소기업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제휴
네오위즈 네오플라이	권용길	· 3기수 운영, 22개사 지원 · 마이리얼트립, 이엠컴퍼니 등	· 네오위즈 운영 · 게임 분야 특화
더벤처스	호창성	· 연중 수시 운영, · 15개사 지원 · 파킹스퀘어, 셀잇, 브릿지모바일 등	· VIKI.com 창업자 출신
벤처스퀘어	명승은	· 3기수 운영, 28개사 지원	·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운영
벤처 포트	유청연	· 2기수 운영, 20개사 지원 · 힐세리온, 퍼블스튜디오 등	· 마젤란기술투자와 공동운영 · VC, 벤처기업가 중심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오렌지팜	권혁빈	· 1기수 운영 · 약 20개사 지원 예정	· 스마일게이트 운영 · 게임 분야 특화
스파크랩	이한주	· 3기수 운영, 13개사 지원 · 노리, 미미박스 등	· 버나드문(美 비드퀵) · 한주(호스트웨이) 등 · 실리콘밸리+국내 창업가
씨엔티테크	전화성	· 1기수 운영, 7개사 지원 · 엄청난벤처, 프리코어 등	· KAIST 학내벤처 1호 창업자 출신 · 서비스 플랫폼 분야 특화
쿨리지코너 & Bootstrap	권혁태	· 6기수 운영, 25개사 지원 · BCNX, 이큐브랩 등	· 자체 보육센터 보유
패션테크놀로지 엑셀러레이터	리차드민	· 1기수 운영, 16개사 지원 · 쉐이커미디어, 루이슈즈 등	· 미국 FT 합작지사 설립 · 패션 분야 특화
패스트트랙 아시아	박지웅	· 4기수 운영, 13개사 지원, · 헬로네이처, 푸드플라이 등	· 스타트업 공동창업 및 투자지원
퓨처 플레이	류중희	· 3개사 지원 · 스튜디오 XID, SNEK 등	· 올라웍스(류중희) 창업자 참여
프라이머	권도균	· 연중 수시 운영, 27개사 지원 · 쿼캣, 에드투페이퍼 등	· 이니시스(권도균), 다음(이택경) 창업자 출신
매쉬업엔젤스	이택경	· 2기수 운영, 29개사 지원 · 버튼대리, 리멤버, 눔 등	· 엔젤 네트워크 (Angel Network)
D.CAMP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김광현	· 콘텐츠 특화 인큐베이팅 등 · 38개사 자금 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 K-startup 매칭투자, 창업공간 제공
K-startup 앱센터운동본부	변광준	· 4기수 운영, 20개사 지원 · 센텐스랩, 젤리코스터 등	· 구글(자금/멘토링), SK플래닛(자금), D.CAMP 협력
SK플래닛 101 스타트업 코리아	서진우	· 1기수 운영, 6개사 지원 · 오픈, 아우름 플래닛 등	· 사회공헌 차원 · 지분 투자 없음
Sopoong(소풍)	임준우	· 국내 8개사, 해외 1개사 등 총 9개사 지원	· 사회혁신기업, 소셜벤처 투자 · 지원 · 이재웅 다음 창업주가 설립
디쓰리쥬빌리	이덕준	· 국내 16개, 해외 15개 총31개사 지원 · 희망만드는 사람들, 파킹클라우드, 유클래스 등	· 전직 G마켓 임원들이 설립 · 국내 및 미국 외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 저소득 국가의 스타트업 발굴
액트너랩	조인제	· 2기수 운영, 7개사 지원 · 오렌지파워, 토이스미스, 크레모텍 등	· 하드웨어 분야 특화 · Lab IX(실리콘벨리) 및 STK, 로켓스페이스, 인텔 등과의 제휴
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강영재	· 5개사 지원 · 코랭고, 마이드라이브스 등	· 이스라엘 멘토링 제공

자료 : 이경상 외(2014)를 기반으로 각사 홈페이지로부터 최근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리

표 3 :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의 차별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고객	과학에 기초를 둔 모든 사업(바이오테크, 나노, 의료장비, 클린에너지 등), 비기술 사업, 모든 연령과 성별, 해당 산업과 섹터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포함	웹 기반, 모바일앱, 소셜네트워킹, 게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설계 등. 즉각적인 대량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컨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주로 젊고 열정을 지닌 남성, 게이머, 해커 등을 선호*
비즈니스 모델	기업과 투자가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나, 인큐베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은 90%이상이 비영리 목적임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스폰서	대학교, 경제단체, 지역단체, 정부	기업가와 투자가
선발과정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경쟁적 선발	다양한 지역과 국가, 전세계에서 경쟁적 선발
지원기간	1–5년 이상(평균 33개월)	단기(1–6개월) 간의 boot camps
투자	보통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 한 팀당 18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 투자하고, 보통 지분을 4–8% 보유
시설	인큐베이션 기간 동안 합리적인 가격 또는 무료로 보육 공간 제공	부트캠프 기간 동안 미팅 장소 제공, 일부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제공하기도 함

자료: Dinah Adkins(2011)

할은 대중화된 창업생태계 속에서 기대효과가 크다. 기존 연구에 나타난 엑셀러레이터가 창업생태계에 미치는 효과는 ①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10~15% 더 높이며, ② 회수금액이 VC투자에 따른 금액보다 크고, ③ VC보다 더 빠른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Birdsall et al., 201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엑셀러레이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벤처캐피탈(VC)과 유사하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VC로 인정하는 설립요건(자본금 50억 규정)을 채우지 못하여 투자법인의 지위 획득이 어렵다. 둘째, VC로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투자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셋째, 엑셀러레이터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확보되고 있지 못하여 관련 사업에 참여가 어렵다. 예를 들어 '투자연계멘토링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개인투자자,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 개인투자조합, VC, 기술지주회사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도 개인 엔젤투자자, 엔젤클럽, 적격 엔젤투자전문회사, 대학기술지주회사, 창업기획사 만이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넷째, 엑셀러레이터는 운영비(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규모가 VC와 비교하여 현저히 크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관련 비용을 조합의 부담으로 하게하고 있어 비용처리가 어렵다. 다섯째,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거나, 우수 창업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없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VC와 비교해서 '작은 자본 규모의 투자 활동', 인큐베이터와 비교해서 '전문보육을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점에서 유사조직과 차별



화되며, 이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1996년 도입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을 통하여 한국이 혁신적 벤처 ·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2010년 이후 '네트워크화', '개인화'라는 기술적 · 사회적 배경은 손쉬운 창업, 가벼운 창업, 빠른 창업을 대거 양산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창업 붐에 부응하고, 한국의 창업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재로서 정부는 엑셀러레이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선우 외(2015 진행중),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사례 및 운영제도 분석』,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김석현(2015), "창업생태계의 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2015.3.12).
김용재 · 염수현 (2014),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이해와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 중소기업청 (2014), "창조경제 New Facilitator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계획".
이경상 · 주희엽 · 손정민 · 한승연 · 안철현(2014), 『엑셀러레이터 성과분석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기반조성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Bo Fishback, Christine Gulbranson, Robert Litan, Lesa Mitchell and Marisa Porzig (2007). Finding Business 'Idols': A New Model to Accelerate Startups,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C. Scott Dempwolf, Jennifer Auer and Michelle D'Ippolito (2014), Innovation Accelerators: Defining Characteristics Among Startup Assistance Organizations,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ptimal Solutions Group, LLC.
Dinah Adkins (2011), What are the new seed or venture accelerators?, NBIA Review
Michael Birdsall, Clare Jones, Craig Lee, Charles Somerset and Sarah Takaki (2013), Business Accelerators: The evolution of a rapidly growing industry, University of Cambridge, Judge Business School.
Susan Cohen (2013), What Do Accelerators Do?: Insights from Incubators and Angels, Innovations 8(3/4).